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벤츠, GLE 2종 출시

GLE 350 e 4매틱

GLE 350 e 4매틱 쿠페

GLE 350 e 4매틱·4매틱 쿠페
뛰어난 전기 주행거리 등 강점
경로 이반 속도 조절 안전성 향상
가격 1억1460만원·1억17060만원

메르세데스-벤츠가 GLE 패밀리 최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인다.

4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벤츠는 최근 프리미엄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LE와 GLE 쿠페 최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E 350 e 4매틱(MATIC)과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E 350 e 4매틱 쿠페'를 국내 공식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차량은 2019년 9월 국내 출시 이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GLE의 4세대 완전 변경 모델 '더 뉴 GLE'와 지난해 10월 국내에 완전 변경돼 출시된 퍼포먼스 쿠페 SUV '더 뉴 GLE 쿠페'에 메르세데스-벤츠의 3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더한 것이다.

우선 벤츠의 3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되면서 뛰어난 전기 주행거리와 배터리 효율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두 모델의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은 최대 출력 211ps, 최대 토크 35.7kg.m를 발휘하는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최고 출력 100kW, 최대 토크 44.9kg.m를 발휘하는 전기 모터가 결합됐다. 특히 31.2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해 전기 모드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국내 기준 최대 66km에 달한다.

여기에 '컴포트'(Comfort), '에코'(Eco), '오프로드'(Off-Road) 모드 외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용 모드인 '배터리 레벨'(Battery Level)과 '전기'(Electric) 구동 모드가 제공돼 효율적인 주행을 돕는다.

배터리 레벨은 전기 절약모드 같이 작동하며 전기 모터만을 사용하는 주행 환경에 대비해 가솔린 엔진만으로 주행, 배터리의 충전량을 일정 수준 유지시킨다. 전기 모드는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만으로 주행하면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 전기 모터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이 요구될 때만 가솔린 엔진을 사용한다.

또 댐핑 조절 시스템이 포함된 에어매틱 패키지가 탑재돼 노면 상황과 차량 속도·하중에 따라 서스펜션을 지능적으로 조절한다. 불규칙한 노면을 달릴 때에는 각 휠을 개별적으로 통제해 편안한 주행을 보장하는 한편, 고속 주행 시 차체 레벨을 낮춰 안정적인 핸들링과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지원한다.

럭셔리 SUV 모델에 걸맞은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과 안전편의 사양도 대거 탑재됐다. 두 모델 모두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를 비롯한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해당 기능은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속도를 조정하는 '액티브 속도 제한 어시스트'와 맵 데이터 기반으로 곡선 구간, 톨게이트, 원형 교차로 등을 인식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경로 기반 속도 조절 기능'이 추가돼 편안함과 안전성이 향상된 게 특징이다.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자동 속도 조절, 제동 및 출발을 지원하는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 디스트로닉'은 기존 30초였던 재출발 시간이 최대 60초까지 연장됐다. 이외에도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과 '하차 경고 어시스트' 등도 포함됐다.

운전자는 주행 중 메르세데스-벤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를 통해 차량의 충전 상태, 에너지 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능형 음성 인식, 터치스크린, 터치패드, 스티어링 휠의 컨트롤 패널을 이용해 시스템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E 350 e 4매틱과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E 350 e 4매틱 쿠페의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각각 1억1460만원, 1억17060만원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두 차량에 탑재된 고전압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최대 8년/16만km(선도래 기준) 무상 보증도 지원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베일 벗은 제네시스 전기차 한 번 충전에 451km 달린다

현대차 GV60 선 보여
퍼포먼스 등 3종 모델
얼굴 인식 기능 첫 도입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첫 전용 전기차 모델인 GV60을 선보였다.

4일 현대차에 따르면 쿠페형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스타일로 고성능 전기차(EV)의 이미지를 강조한 GV60은 전장(길이) 4515㎜, 전폭(너비) 1890㎜, 전고(높이) 1580㎜다.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휠베이스(축간거리)는 기아 EV6와 같은 2 900㎜다.

스탠다드 후륜·사륜 모델과 사륜구동이 기본 적용된 퍼포먼스 모델 등 총 3가지로 운영된다. 모두 77.4kWh 배터리가 장착되며 스탠다드 후륜 모델 기준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거리는 451km다. 후륜 모델은 최대 출력 168kW, 최대 토크 350Nm 모터를 탑재했다.

사륜 모델은 후륜에 최대 출력 160kW 모터를, 전륜에 최대 출력 74kW 모터를 장착해 합산 최대 출력 234kW, 최대 토크 605Nm의 성능을 발휘하며, 1회 충전 최대 주행 가능거리는 400km다.

퍼포먼스 모델은 전륜과 후륜에 각각 최대 출력 160kW 모터를 장착해 합산 최대 출력 320kW, 최대 토크 605Nm, 1회 충전 거리 368km의 동력 성능을 갖췄다.

퍼포먼스 모델에는 순간적으로 최대 출력을 높이는 부스트 모드가 적용됐다.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10초간 최대 합산 출력이 360kW까지 증대되고 4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한다.

제네시스는 GV60에 차량이 운전자 얼굴을 인식해 키 없이도 차량 도어를 잠금·해제하는 페이스 커넥트 기능을 처음 도입하고, 지문 인증 시스템과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 등을 대거 적용해 사람과 차량의 교감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지문 인증 시스템으로 차량 내 간편 결제뿐 아니라 차량의 시동·주행이 가능해 페이스 커넥트 기능과 함께 사용하면 키 없이 운전자의 생체 정보만으로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주행까지 할 수 있게 된다.

GV60에는 가상 주행 사운드를 드라이브 모드, 속도, 가속 페달과 연동, 실내 스피커로 제공하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e-ASD)도 처음 적용됐다. 3가지 사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400V/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을 적용했고, 350kW 초급속 충전 시 18분 이내에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완속 충전 용량을 기존 7.2kW에서 11kW로 늘려 충전 시간을 단축했다.

판매 가격(친환경차 세제 혜택·개별소비세 3.5% 반영 기준)은 스탠다드 후륜 모델 5990만원, 스탠다드 사륜 모델 6459만원, 퍼포먼스 모델 6975만원이다 . /박기웅 기자 pboxer@

기아 쏘렌토, 견인 성능 가장 뛰어난 차

영국 '토우 카 어워드 2021' 우승

기아 쏘렌토가 캠핑용 카라반 견인 성능이 뛰어난 차량을 선정하는 영국 '토우 카 어워드 2021'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4일 기아에 따르면 토우 카 어워드를 주관하는 영국 자동차 전문 매체 '왓카'는 소형 해치백부터 럭셔리 스포츠유틸리티차(SUV)까지 약 40개 차종에 카라반을 장착한 상태에서 고속 주행과 제동 등을 테스트한 결과 쏘렌토의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실용성, 안전성 등을 높게 평가해 종합 우승 차량으로 선정했다.

특히 쏘렌토에 장착된 2.2 디젤 파워트레인은 무거운 카라반을 견인하는 데 이상적이며 시속 30마일(48km)에서 60마일(97km)까지 가속하는 데 11.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7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과 차량 실내에 탑재된 USB 포트 등도 실용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쏘렌토는 BMW X5, 폭스바겐 파사트, 포드 레인저 픽업트럭 등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왓카는 "시속 60마일에서도 안정적이고 편안해 더 무겁고 비싼 SUV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대형 카라반도 안전하게 견인할 수 있는 가장 다재다능한 캠핑 카라반 견인용 자동차"라고 호평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새 보증연장 상품 출시…조건·차종 다양

현대자동차는 새롭게 개편된 '뉴(New) 보증연장 상품'을 출시했다.

4일 현대차에 따르면 보증연장 상품은 무상 보증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추가적인 계약기간·주행거리만큼 보증 기간을 연장해주는 서비스다.

이번에 리뉴얼된 보증연장 상품은 기간과 주행거리 선택지가 더욱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수소전기차 넥쏘와 제네시스 전 차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보증기간과 주행거리를 조합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 부품과 엔진미션 부품의 보증연장 기간과 주행거리도 각각 선택할 수 있다.

뉴 보증연장 상품은 현대차·제네시스 차종을 구입한 지 2년(출고일자 기준) 또는 주행거리 4만km 이내인 개인·개인사업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 차량과 택시·리스·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